

# 순천만정원박람회 “주말에 명품 문화공연 즐기세요~”

이달 매주 주말 오전그린광장서 클래식·재즈 등 선배  
입장권·지정석 없어 개인 돛자리 지참하면 관람 가능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6월 매주 주말 선보이는 고품격 ‘가든 클래식’ 공연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내 공연장에서 볼 법한 클래식 공연이 탁 트인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져 푸른 잔디는 관람석이, 노을정원은 있는 그대로의 문화 공연장이 되고 있다.

7일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6월 해질녘, 박람회장을 품격 있는 문화 공연으로 채워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달 매주 주말 오후 7시 30분 오전그린광장에서 ‘해가 지는 오전에서’라는 주제로 클래식 문화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현충일 연휴 동안 노을정원에 놓인 금빛 하프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를 찾는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관람객들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연주를 정원에서 마주하니 색다르다”, “선선한 바람, 푸른 풍경에 고품격 클래식 연주가 더해져 황홀했다”, “힐링 된다. 2023정원박람회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간다”고 호평했다.

오는 10일에는 전 세계 영화·음악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엔니오 모리코네의 음악과 디즈니·지브리·마블 OST로 전 세대를 겨냥한 ‘해설이 있는 영화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11일에는 ‘언덕 위 클래식’이란 테마로 고품격 현악 4중주 공연이 준비돼 있다.

17일에는 판소리 이수자인 배일동 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6월 매주 주말 탁 트인 정원을 배경으로 ‘가든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가든 클래식’ 공연 모습.



《순천시 제공》

창의 ‘K-클래식’, 18일에는 ‘Romantic Hill’이란 주제 아래 낭만 가득한 클래식

기타 선율이 울려 퍼진다. 21일에는 ‘기분 jazzy는 밤’이라는 주제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재즈 스탠다드 공연이

펼쳐진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은 일몰 명소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붉게 물들어 가는 정원과 화려한 야간경관으로 대표되는 밤의 정원은 여름 정원을 즐기는 최

의 테마 중 하나”라며 “노을 지는 정원

에서 여름밤의 감성을 높여줄 고품격 문화공연 역시 다채롭게 준비돼 있으니 특별한 여름 피서지를 찾고 있다면 순천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방

문해달라”고 말했다.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리는 문화공연은 박람회 입장권도 필요 없으며, 지정된 좌석 없이 개인 돛자리를 지참하면 어디서든 관람 가능하다. /순천=정기자

## 곡성군 ‘인구소멸 위기 선제 대응’ 보고회 개최

리스팅타운 고도화·유학마을 조성 등 계획 수립

곡성군이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7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동마루에서 ‘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보고회에는 이상철 군수와 실과장,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행정·전문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2-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2023년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사람이 머무르고, 찾아오는 행복한 곡성!’이라는 비전에 따라 인구활력 증진·지역일자리 창출·지역인재 양성·거점형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리스팅타운 고도화사업, 곡성형 유학마을 조



성 등 38개의 핵심·중점 사업을 위주로

역 내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더 나은 정주환경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이호선기자

## 장성군, 신소득 약용작물 ‘지황’ 재배단지 조성

경옥고 주원료...국내 품종 ‘토강’ 8.4ha 확대 추진

장성군은 7일 “신소득 약용작물 ‘지황’(사진) 육성을 위해 재배단지 조성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황은 경옥고의 주원료로 함량, 불면증 개선, 스트레스 저감 등에 효능이 있어 약재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꾸준히 소비되고 있다.

또 최근 국내산 수요가 증가해 지황 재배면적 역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지황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장성군이 재배할 지황의 품종은 ‘토강’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다. 수확량이 낮고 병충해에 약한 여타 품종과 달리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하고 뿌리썩음병 등에도 강하다.

군은 안정적인 지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모화, 단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8.4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황 재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연작 장애, 습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장성=김문태기자



장성군 관계자는 “지황 재배단지 확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재배기술 확립이 필수”라며 “구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도 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교육 재개

9월3일까지 윈드서핑·카약·스킨스쿠버 등 10개 종목

여수시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사진》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체험 종목은 당기요트·카약·카누·윈드서핑·스킨스쿠버·드래곤보트 등 10여개이며, 참여자는 전문 강사에게 안전·이론·장비 교육을 받은 뒤 실습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은 오는 9월3일까지 ▲웅천친수공원 ‘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레저스쿨’, ‘방과 후 체험교실’, 14일부터 9월3일까지 ▲소호요트마리나 ‘여수요트학교’에서 각각 운영된다. 강습비와 장비 대여료는 모두 무료

이며, 참가자는 물 빠짐이 좋은 옷·아쿠아슈즈·모자·선크림·여벌옷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단, 편의시설(사위장·물품 보관함) 사용료는 유료이며, 여수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체험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사전에 여수시OK통합예약(ok.yeosu.go.kr),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각 프로그램별 운영기간, 예약방법, 연령제한 등이 상이하므로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방과 후 체험교실’에 한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참가 자격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여수=김진선기자

## 광양시 ‘남도서 한달 여행’ 참여자 모집

오는 16일까지...7박8일간 숙박·교통·식비 등 지원

광양시가 전남도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서 한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지인처럼 여행하기, 여행의 일상화, 환경 친화적 여행 등 로컬리안 여행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전남·광주 거주자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 광양 여행 희망자로 참가자에게는 7박8일 여행 기간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여행계획서 등을 오는 16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여행작가, 유튜브, 파워블로거 등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우대 선

정하는 한편 SNS 홍보 과제를 부여해 광양관광 브랜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관광지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강화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구영 관광과장은 “진정한 여행은 잠시 스쳐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머물고 살아보는 것”이라며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먹거리 등 광양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의 숨은 매력을 적극 홍보해 관광객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양홍렬기자



## 고흥군, 전국 고흥군향우회 회장단 간담회

민선 8기 ‘소통·화합’ 강조 규정 일한...정기적 간담회 등 개최키로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실에서 ‘전국 고흥군향우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간담회는 군이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전국 각지 향우들과 공유하고 고흥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활발히 소통, 교류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했다.

전국의 지역별 향우회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동안 사례가 없었던 일로 민선 8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는 규정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서울, 성남, 대구, 전주, 광주, 여수, 광양, 순천, 강진에서 지역별 향우회장과 사무총장 20명이 참석했다.

군은 전국 향우회장단과 규정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으며, 향우회장단도 전국 향우회들과 함께 고흥을 응원하고 고흥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이어 규정 1층 로비에서는 향우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 사랑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중한 뜻을 연구회 간직하기 위한 ‘고흥사랑’ 제작식도 함께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공영민 군수는 “전국에 있는 70만 고흥 향우들은 고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원군”이라며 “이번 행사가 향우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고흥의 나아가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전국에 있는 고흥군 출신 향우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규정 홈페이지 향우계시판 개설, 전국 향우회 단독방 운영 등 향우회와의 윈윈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고흥=최봉환기자